

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

2024. 1

기획재정부

순서

I . 추진 배경	1
1. 계획 수립 배경	1
2. '23년 성과관리 추진성과 및 한계	3
II . 2024년 성과관리 추진방향	5
III . 중점 추진과제	7
1.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	7
2. 재정사업 성과평가	10
3. 성과목표관리	14
4. 성과관리 인프라	15
IV . 세부 실행계획	16

I. 추진 배경

1. 계획 수립 배경

□ 국가재정법('21.12월 개정)에 따라 5년 단위의 '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' 및 연도별 '성과관리 추진계획' 수립 의무화

⇒ 「'22~'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」('22.8)을 토대로
'23년 추진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('23.1)

※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(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- ① 기획재정부장은 ...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결과,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바탕으로 「'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 수립

○ '23년 추진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①인프라 구축 및 ②신규 제도 도입·안착에 중점

- ① 다수 평가간 중복 최소화 등 통합평가체계 구축, 성과정보 DB 구축 등
- ②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,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도입 등

○ 이를 토대로 '24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,

- 어려운 재정여건과 저출산 등 재정소요 증가로 성과 기반의 재정지출 효율화가 긴요한 상황임을 계획 수립시 적극 고려

〈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현황 〉

① **(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)**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* 선정
→ 주기적으로 밀착·집중 관리하여 5년간('23~'27) 가시적 성과 창출

* 반도체 인력양성·기술개발·사업화, 스타트업 지원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, 청년일자리·자산형성 지원, 장애인 돌봄, 산불대응능력 강화 등

② **(사업성과평가)** ①개별부처 주관 사업평가 + ②기재부 주관 사업평가

① 6개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* 제도 운영중

* 재정사업자율평가·복권기금평가(기재부), R&D평가(과기부), 재난안전평가(행안부), 균형발전평가(지방시대위원회), 일자리사업평가(고용부),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(중기부)

② 그 외 기재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, 기금평가,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

- (보조사업 연장평가) 존속기간(3년)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평가('16~)

- (기금평가) 기금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 평가('00~)

- (심층평가) 객관적 성과검증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·평가 → 재정투입방향 및 사업구조 개선안 제시('05~)

③ **(성과목표관리)** 프로그램별 성과목표·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도 측정·관리('03~)

① (성과계획서) 차년도(n+1년도)의 사업별(프로그램 단위) 성과목표, 성과지표,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(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)

② (성과보고서) 전년도(n-1년도)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, 미흡 원인 등 보고(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)

③ (대표성과지표) 국정과제·핵심임무 등 부처가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적 재정사업 성과지표(105개, 부처별 2~3개)* 설정·공개('23~)

* (예) 기재부(관리재정수지), 복지부(상대적 빈곤율), 문체부(국민여행 총량) 등

2. '23년 성과관리 추진성과 및 한계

1

주요 추진성과

- **(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)**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제도 안착
 - 사업별 작업반*을 구성하여 성과지표·목표 설정 후 집중·밀착 관리 → 제도 개선** 및 '24년 예산 대폭 확대*** 반영
 - * 민간전문가, 기재부, 소관부처, 조세연 등으로 12개 작업반 구성·운영
 - ** (예)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완화(실업기간: 6개월→4개월 이상) 등
 - *** ('23년 예산) 12.0조원 → ('24년 예산) 12.6조원 (+6,294억원, +5.3%)
- **(사업성과평가)** 평가결과 예산 환류 강화 및 통합평가체계 구축
 - '23년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
 - 통합평가지침 제정, 개별 평가간 평가대상 중복 축소* 등을 통해 6개 부처의 7개 성과평가에 대한 통합평가체계 기반 마련
 - *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타평가(R&D평가, 복권기금평가,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, 일자리사업평가, 균형발전평가, 재난안전평가) 간 평가대상 중복 해소
- **(성과목표관리)** 성과지표수 축소, 부처 대표성과지표 설정·공개, 성과정보 DB화 등을 통한 성과관리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
 - '24년 성과계획서 작성시 프로그램당 성과지표수를 기존 2~3개에서 1개로 축소('23년 1,069개 → '24년 507개)하여 평가부담 완화
 - 성과정보DB 구축을 통해 유사·중복사업 발굴, 성과관리결과 분석 등 성과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 마련

- **(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)** 도입 후 1년 경과 → 사업별 특성, 여건 변화에 맞게 사업유형별*로 성과관리방식 차별화 필요성 제기

* ①주요쟁점이 조기 해소된 사업, ②주요쟁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, ③성과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

- 아울러, 국민생활과 밀접한 **복합적 문제** 해결을 위해 **다부처 협업**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**성과관리**도 요구되는 상황

※ '23년에는 단일 부처 개별 사업 위주로 성과관리

- **(사업성과평가)** 6개 부처의 7개 평가에 대해 통합평가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, 지속가능한 통합평가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미비

- ①평가대상, ②평가항목, ③평가방식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부 중복 또는 분절적 평가가 남아있는 상황

① 6개 부처가 운영중인 개별 평가간 일부 **평가대상사업 중복**

② 일부 평가는 **공통평가항목**(7개 평가에 공통 적용 가능) 미적용중

③ 일부 평가는 **상대평가**(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적용 필요) 미적용중

- **(성과목표관리)**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성과평가간 연계* 미흡

* 성과계획서 작성시 보조사업평가 등 평가결과를 활용한 계획 수립 미흡

- 체계적 성과정보관리 및 공개를 위해 **성과DB** 및 **성과포털**이 구축되었으나, 대상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간 연계도 부족

Ⅱ. 2024년 성과관리 추진방향

- ◇ 성과에 기반한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및 국정운영 성과 조기 창출에 기여

① [핵심재정사업] 밀착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

-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(23) 2년차인 '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강화
- 다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'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' 시범 도입·운영

※ “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갑시다” (‘24.1.16, 국무회의시 대통령 모두발언)

② [사업성과평가] 통합평가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평가체계 정착

- 6개 부처의 7개 성과평가에 대한 통합평가체계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·운영

③ [성과목표관리] 평가결과 연계 등을 통한 성과관리 활용도 제고

- 성과계획서와 사업성과평가 및 성과계획서와 dBrain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계획서의 활용도 제고 및 업무부담 완화

④ [인프라] 성과DB·성과포털 확충으로 성과관리 효율성·투명성 제고

-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·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DB 확충 및 대국민 공개 확대

재정건전성 제고 및 국정운영 성과 조기 창출에 기여



4대 분야

10대 중점과제

①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

- ① 사업별 여건·특성에 따른 맞춤형 성과관리
- ② 성과관리 추진방식 개선 : 상시관리체계 전환
- ③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시범 도입

② 사업성과평가

- ④ 재정사업 통합평가체계 강화
 - 7개 평가간 평가대상·항목·방식 체계적 정비
 - 「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」 구성·운영
- ⑤ 보조사업·기금평가 및 심층평가 보완·개선
 -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집행·관리 적정성 평가 강화
 - 기금운용의 수익성·공공성 제고 노력 평가 강화
 - 심층평가와 다른 성과관리간 연계 및 이행관리 강화

③ 성과목표관리

- ⑥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성과평가간 연계 강화
- ⑦ 성과지표의 포괄성·대표성 제고
- ⑧ 성과계획서와 dBrain간 연계 강화

④ 성과관리 인프라

- ⑨ 성과DB 확충 및 부처간 성과정보시스템 연계
- ⑩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 정보공개 확대

Ⅲ. 중점 추진과제

1.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

- ◇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('23) 2년차인 '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강화
- ◇ 이와 별도로, '24년에 다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'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' 시범 도입·운영

① 핵심재정사업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성과관리 추진

- 12대 핵심재정사업별 '23년 추진 결과,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별로 '24년 성과관리 체계·방식 재설정

- ① 제도개선을 통해 주요이슈가 조기 해소된 사업*(3개 사업)
→ 성과지표별 성과 모니터링에 중점

* 청년 자산형성·일자리 지원,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, 국방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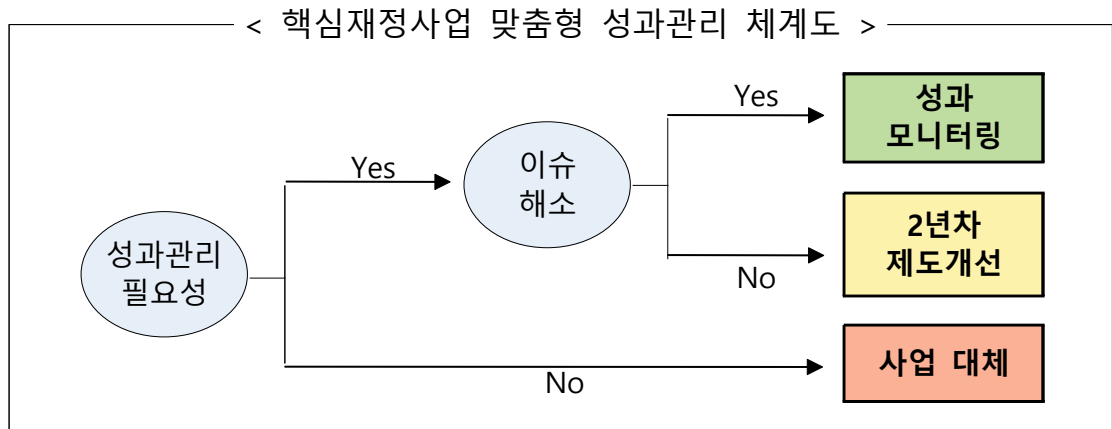
※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신규이슈 확인시 ②로 재분류

- ②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*(8개 사업)
→ 2년차 제도개선 및 사업 재설계에 중점

*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,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, 지역균형발전,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,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, 중소벤처·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재난·안전 관리시스템 고도화, 국격·외교역량 강화

- ③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성과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*(1개 사업) → 다른 사업으로 대체

* 생활물가 안정지원(농축수산물 할인지원 → 농산물 비축지원)



②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식 개선 : 상시관리체제로 전환

① PI보드(Performance Information Board) 방식을 도입하여 분기별 성과 점검 및 정보공개 → 성과관리의 적시성·효율성 제고

-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,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 점검·관리
→ 점검결과에 따라 4색등(빨강, 주황, 노랑, 초록)으로 표시
- 성과관리 미흡(빨강)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, 심층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 마련

▶ PI보드(Performance Information Board) 점검·관리방안

- (점검내용) 성과지표 달성도, 해당사업 집행현황,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
- (점검방식) 성과관리 점검팀*의 등급부여 의견을 종합하여 등급 확정
* 기재부 과장, 해당사업 작업반장, 외부전문가, 조세연 사무국장으로 구성
- (등급구분) 목표달성 가능성에 따라 4색등으로 표시

4색등	●	●	●	●
목표달성 가능성	매우 높음	높음	낮음	매우 낮음

② 성과관리 작업반에 핵심재정사업(군) 관련 정책수혜자* 포함 → 현장의견 수렴 기능 강화

* 핵심재정사업(군) 관련 직접적인 정책수혜자(청년, 장애인 등) 또는 정책수혜자를 대표하는 기관·단체 대표자(소비자단체 등)

③ **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시범 도입**

○ 기존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와 별도로 **다부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'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' 트랙 시범 도입**

-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**다부처 협업과제 선정** → '24년 시범 운영 후 '25년부터 추가 확대

※ (해외사례) 미국 연방정부의 다부처 핵심목표(Cross-agency Priority Goals) 성과관리, 뉴질랜드의 다부처 성과목표 관리(Result Program) 등

▶ **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시범 도입방안**

< 대상과제 선정기준 >

① **동일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다수 사업***으로 구성

* 국정과제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고 **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**

② **다부처 협업을 통해서만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성과 창출 가능**

③ **병렬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**

④ **공동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효율적 성과 창출 가능**

* 최종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중 확정 추진

< 성과관리 방안 >

① **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부처 공통 성과지표*** 설정

* 다수 사업을 포괄하는 **종합지표** + 과정관리를 위한 **중간지표**
+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한 **협업지표** 설정

②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 **부처간 협업***을 통한 **장애요인 해소, 제도개선 및 사업간 조정·재설계** 추진

*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해 **재정당국(기재부)**이 **컨트롤타워** 역할 수행

③ 양질의 성과정보 도출 및 현장밀착형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·정책수혜자 **심층면접, 설문조사, 현장점검**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

④ 필요시 재정사업 **심층평가**와 **연계**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·평가 실시

2. 재정사업 성과평가

◇ 6개 부처의 7개 성과평가에 대한 통합평가체계 강화 및
통합적·체계적 정비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·운영

1

재정사업 통합평가체계 강화

① 7개 평가간 평가 대상·항목·방식을 통합적·체계적으로 정비

-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*간 정합성·일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·평가항목·평가방식에 대한 단계적 정비 추진

* 재정사업자율평가·복권기금평가(기재부), R&D평가(과기부), 재난안전평가(행안부), 균형발전평가(지방위), 일자리사업평가(고용부),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(중기부)

① (평가대상) 7개 개별 평가간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

- (현행) 재정사업 자율평가(기재부)와 나머지 6개 평가간 중복은 해소('23~)되었으나, 6개 개별 평가간에는 여전히 일부 중복
- (개선) '24년부터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(중기부)와 R&D평가(과기부)간 중복 해소 추진

※ 나머지 개별 평가간 중복 문제도 향후 평가간 사업 특성 분석, 평가 총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복 해소 추진

② (평가항목) 공통평가항목('23년 도입) 적용 확대

- (현행) 공통평가항목* 및 개별평가항목**으로 평가항목 정비('23)
→ R&D평가 및 복권기금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에 적용

* (공통평가항목) 재정사업에 대한 필수 평가항목(집행효율성, 성과달성도 등)
(개별평가항목) 개별평가 취지를 고려한 평가항목(재난안전 기여도 등)

- (개선) '24년부터 복권기금평가(기재부)에도 공통평가항목 적용

※ '25년부터는 R&D평가에 대해서도 공통평가항목 적용 확대 추진

< 재정사업 성과평가별 항목체계 >

재정사업 자율평가		재난안전 평가		일자리 사업평가		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		지역균형 발전평가		복권기금 평가		R&D 평가	
← '23년 '24년 →													
공통 항목		사업계획의 적정성, 집행 효율성, 성과달성도, 환류 및 개선노력 등										미적용	
개별 항목		재난안전 기여도 등		고용유지율, 취업률 등		매출증가율, 부가가치증가율 등		수도권-비수도권 예산 비중 등		복권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		수혜자, 환류 등	

③ (평가방식) 상대평가* 방식 적용 확대

* 평가등급(우수·보통·미흡 등)을 분류하고, 등급별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

- (현행) 평가 관대화 등 온정주의 개선을 위해 R&D평가 및 복권기금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상대평가 실시
- (개선) '24년부터 R&D평가에도 상대평가 실시

※ '25년부터는 복권기금평가에 대해서도 상대평가 적용 확대 추진

② 「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」 구성·운영

- 7개 성과평가간 지속가능한 통합평가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제도화

- 「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」 운영을 통해 통합평가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운영상 발생하는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

※ '재정사업 통합평가지침'에 협의회 구성·운영 근거 명시

▶ 「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」 구성·운영방안

- (구성) 기재부 재정관리관(위원장), 재정성과심의관(간사), 복권위 사무처장, 과기부·행안부·고용부·중기부·지방시대위원회 성과평가 담당 국장
- (운영) 평가주기에 따라 연 3회(5월, 8~9월, 11~12월) 개최
 - ① 통합평가체계 운영방향(평가기준·일정 등) 설정 및 통합평가지침 확정
 - ②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 후속조치 논의 및 모범사례 공유·확산
 - ③ 평가대상·항목·방식의 통합적·체계적 정비 등 평가제도 개선 등

※ 주요쟁점·핵심사항 등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(위원장 : 기재부 2차관) 상정·논의

① [보조사업 연장평가] 보조사업 집행·관리의 적정성 평가 강화

-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 부여, 예방 유도 등 보조사업 집행·관리의 적정성 평가 강화('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지침 개정)

①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사업은 '정상' 판정 배제

* 85점 이상 : 정상 판정 / 85점 미만 : 폐지·통폐합·감축 등 판정

-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, 최종점수와 상관없이 '정상' 판정 불가

② 부정수급 시정 및 예방 노력에 대한 가점 부여

-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금의 환수*, 자체적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 노력이 우수한 경우 평가 가점 부여

* 부정수급 발생 사업의 최근 3개년 환수율이 높은 경우

③ 후속 컨설팅을 통한 사업 관리체계 개선 유도

-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집행·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
- 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차기 평가에 반영

④ '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'에 대한 평가 배점 확대

- 보조사업자 선정, 보조사업 집행, 부정수급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 상향(20→30점)

② [기금평가] 자산운용의 수익성 및 공공성 제고 노력 평가 강화

- ①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*이 높은 중장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 기금에 유리하도록 개선

* 수익률('23) : 단기자산 3.91% < 중장기자산 8.78%

- 기금이 여유자금을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평가항목에 명시*하고, 해당 평가항목 배점 확대**('24년 기금평가지침 개정)

*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"적극적인 중장기자산 운용을 고려"할 것을 명시

** 대형기금(1조원 이상) : 1.5→2.0점, 중소형기금(1조원 미만) : 2.0→2.5점

- ② 기금 여유자금의 ESG·지역발전 등 공공성 투자 확대 유도

- 기금의 ESG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기금평가의 관련 지표 (ESG 투자비중) 배점 확대(1→1.5점)

- 기금이 연기금투자플*을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에 투자시 기금평가**에 펀드 투자실적 반영

*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위탁받아 통합운용('01~)

** 기금평가의 공공성 투자 점수 부여 대상에 '지역활성화 투자펀드'를 추가하고, 공공성 투자 평가항목 배점 확대(1→1.5점)

③ [심층평가] 다른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 및 이행관리 강화

- ①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연계

- 필요시 '24년에 시범운영하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다부처 협업과제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→ 심층분석 결과 환류

- ②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관리 강화

- 심층평가 이후 소관부처의 심층평가 결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여부 등에 대해 적극 사후관리

3. 성과목표관리

- ◇ 성과계획서와 사업성과평가 및 성과계획서와 dBrain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계획서의 활용도 제고 및 업무부담 완화

① 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 성과평가간 연계 강화

- 다양한 재정사업 성과평가* 결과를 성과계획서에 명시
 - * 재정사업 자율평가, 심층평가, 보조사업 연장평가, 기금평가 등
- ⇒ 사업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內 사업간 재원배분 조정 및 프로그램 성과 분석에 적극 활용

②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포괄성·대표성 제고

- '1프로그램 1성과지표' 체계에서 성과지표가 해당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도록 성과지표 개선
 - 필요시 이질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구조 개편도 추진

③ 성과계획서와 dBrain(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) 간 연계 강화

- 성과계획서와 dBrain 간 연계 확대를 통해 기존에 개별 입력되던 다양한 예산정보를 성과계획서에 자동 반영
- ⇒ 성과계획서 작성부담 완화 및 예산 관련 정보 오류 방지

4. 성과관리 인프라

◇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·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
재정사업 성과정보 DB 확충 및 대국민 공개 확대 추진

① 성과정보 DB* 확충 및 부처간 성과정보 시스템 연계

*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에 구축된 성과정보 DB로서 부처별·연도별·사업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정보(기본정보·성과정보·속성정보) 통합관리

① 현재 DB화가 미흡*한 성과평가 관련 정보 대폭 확충

* 현재는 종합평가점수, 종합평가등급(우수, 보통, 미흡) 등 최소한의 성과정보만 DB화되어 있는 상태

-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, 정량·정성평가에 대한 분석내용 등 세분화된 성과정보 추가 DB화

② 성과정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간 연계 → 유사·중복사업 발굴, 성과관리결과 분석 등 성과DB 활용 강화

- 별도 시스템을 운영중인 균형발전사업평가시스템(NABIS)의 성과정보가 성과DB에 자동으로 등록*되도록 dBrain와 연계

* 균형발전사업평가시스템(NABIS)에 평가결과 데이터 입력(지방시대위원회)
→ NABIS의 데이터를 당겨받아 dBrain 성과DB에 데이터 자동 등록

※ 별도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R&D정보시스템(NTIS)은 dBrain과 기연계('22~)

②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성과정보 공개 대폭 확대

- 현재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('열린재정' 성과포털)에 미공개*되어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정보 신규 공개 추진

* 현재는 성과목표관리, 대표지표,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정보만 성과포털에 공개(성과평가 결과는 평가보고서 원본 형태로 제공되어 활용 제한)

-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성과포털(열린재정)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'성과평가 결과' 공개 페이지 신규 구축

IV. 세부 실행계획

- ◇ 추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
- 상당수 과제는 관련 지침* 개정 등을 거쳐 '24년 1분기 시행
 - * 재정사업 통합평가지침, 보조사업 연장평가지침, 기금평가지침 등
 - 추가 협의 필요과제 등은 신속하게 관계부처 협의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

①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

주요 과제	추진시기
■ 핵심재정사업 분기별 성과지표 설정 및 PI보드 모니터링	분기별
■ '24년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 작업반(정책수혜자 포함) 구성	'24.2월
■ 다부처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	'24.2월

② 재정사업 성과평가

주요 과제	추진시기
■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 구성	'24.2월
■ '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개정 * 평가대상에서 R&D평가 대상사업은 제외	'23.12월 (기초치)
■ '23년 복권편람 개정 * 재정사업 성과평가 공통평가항목 적용	'23.1월 (기초치)
■ '2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개정 * R&D평가에 상대평가 실시	'23.11월 (기초치)

주요 과제	추진시기
■ '24년 재정사업 통합평가지침 개정 *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명시	'24.2월
■ '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지침 개정 * 보조금 부정수급 패널티 및 시정·예방 노력 가점 부여 등	'23.12월 (기조치)
■ '24년 기금평가지침 개정 * 중장기자산 투자 및 ESG평가 관련 배점 확대 등	'24.2월
■ 심층평가 결과 이행상황 점검	반기별

③ 성과목표관리

주요 과제	추진시기
■ 사업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성과계획서 양식 수정 및 배포	'24.4월
■ 성과지표 대표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과목구조 개편	'24.4월
■ 성과계획서와 dBrain(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) 간 연계 강화	'24.5월

④ 성과관리 인프라

주요 과제	추진시기
■ dBrain(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) 개편 * 성과평가 관련 정보 추가 확충, 균형발전사업평가시스템 연계 등	'24.2분기
■ 성과평가 결과 정보 신규 공개를 위한 열린재정 개편	'24.2·3분기